

품명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HS code	2101.11				
관세율(%)	MFN		VK FTA	AK FTA	RCEP
	30	0	0	24	
<p>▶ 해당 품목의 대체 수출은 '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5년에는 최근 5년간의 수출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며, 3분기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47.4% 증가한 797만 달러를 기록함</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의 연도별 대체 수출동향(HS code 2101.11)</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 불, %)</p>					
선정 사유	연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2020	6,736		79.1	
	2021	4,927		-26.9	
	2022	2,725		-44.7	
	2023	2,613		-4.1	
	2024	2,544		-2.7	
	2024.9	1,457		-24.2	
	2025.9	7,975		447.4	
<p>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p> <p>▶ 베트남의 인스턴트 커피 시장은 베트남 전체 커피 시장의 75.6%를 차지하는 핵심 소비 부문으로,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커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됨</p> <p>▶ 한편 베트남에서 확산되고 있는 한류 열풍은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크게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이미지는 한국 인스턴트 커피의 프리미엄 포지셔닝과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p> <p>▶ 소비자 수요의 다양화와 한류를 통한 한국 브랜드 선호도 증대가 맞물리면서 향후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동 품목을 3분기 수출 증가 품목으로 선정함</p>					

우리나라 대체
수출동향
(HS 2101.11)

▶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HS 2101.11)의 대체 수출금액은 감소세를 보이다 '25년에는 '24년 총 수출액의 약 3.1배가 넘는 금액을 수출하였으며 이 중 인스턴트 커피(HS 2101.11-1000)이 수출액의 99.9%의 비중을 차지함

한국의 연도별 대체 수출동향(HS code 2101.11 세부품목)

(단위 : 천 볼, %)

구분	HSK	품목명	수출금액		
			2023년	2024년	2025년 3분기
총계			2,613	2,544	7,975
1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2,602	2,527	7,972
2	2101.11-9000	기타	12	16	3

자료 :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출금액 및
FTA 활용현황
(HS 210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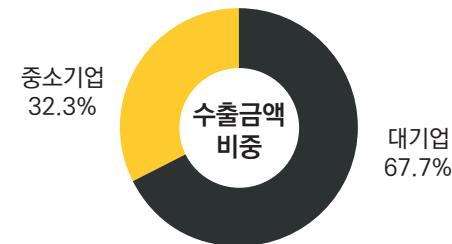
▶ HS 2101.11(추출물·에센스·농축물)의 대체 수출금액과 FTA 활용률 모두 증가함
 - FTA 활용률은 '24년 3분기 64.7%, '25년 3분기 74.8%로 나타남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PSR)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는 CTH or RVC 40%, RCEP은 CC or RVC 40% 임

▶ '25년 3분기 기준 HS 2101.1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대기업 67.7%, 중소기업 32.3%임
 - FTA 활용률은 대기업 100.0%, 중소기업 21.9% 임

[HS 2101.11 대체 수출금액 및 FTA 활용률(2024~2025)]



[HS 2101.11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2025년 3분기)]



< FTA 활용률 > 대기업 100.0%, 중소기업 21.9%

- ▶ '24년 수입 금액 기준, 베트남의 HS 2101.11의 주요 5대 수입국은 브라질,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은 베트남의 전체 수입액 중 약 1.4%를 차지하였음

베트남의 HS 2101.11 5대 수입국 및 한국의 수입금액 비중(2023~2024)

(단위 : %)

구분	브라질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그 밖의 국가
'24	39.4	15.9	13.1	11.6	10.6	1.4	8.0
'23	16.8	6.6	20.0	29.7	7.2	2.1	17.6

자료 : ASEAN Stat

- ▶ 브라질을 제외한 주요 수입국 모두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베트남의 HS 2101.11 5대 수입국 협정세율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베트남 수입 및 관세 현황

구분	MFN(%)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특혜세율(%)	
브라질	30	-	-	-
인도	30	아세안-인도	5	CTSH and RVC35
중국	30	아세안-중국	0	RVC40 or CC
		RCEP	24	RVC40 or CC
말레이시아	30	ATIGA	0	RVC40 or CC
		RCEP	24	RVC40 or CC
인도네시아	30	ATIGA	0	RVC40 or CC
		RCEP	24	RVC40 or CC
한국	30	아세안-한국	0	RVC40 or CTH
		베트남-한국	0	RVC40 or CTH
		RCEP	24	RVC40 or CC

자료 : 베트남 산업통상부

시사점

- ▶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은 주요 수입국인 브라질, 인도, 중국 등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아직 낮지만, 한류 확산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젊은 세대의 선호 확대에 힘입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이 높음
- ▶ 베트남의 주요 5대 수입국 중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운데, 한국은 한-베트남 FTA와 한-아세안 FTA를 통해 0% 관세 혜택을 확보하고 있어 원가 경쟁력이 있으며, 작년 동기 대비 FTA 활용률 또한 상승함
- ▶ 한류로 인한 브랜드 호감도와 FTA를 통한 관세 우대가 결합되면서 한국산 인스턴트 커피는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품질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함